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45)(3/24/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1 장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멸시함, 3 절

삼상 16:7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신 6:5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렘 17:10 -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골 3:23 -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3.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는 데 요구되는 것들을 행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또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물은, 외적으로 나타난 표적들과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만족해 버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이는 일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라고 불려지기를 바라면서도, 덧없고 무가치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으로 끈질기게 추구하는 반면에,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살피는 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모르겠고, 우리가 어떤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며,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해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제하는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신의 중심”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내면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요 4:24 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과 육체적인 행동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내면, 중심을 보신다. 삼상 16:7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경외와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하고 우리의 영혼육의 온 존재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성생활 전체에 적용된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신 6:5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신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자신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온 존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중심이다.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나의 중심에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지, 나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믿고 섬기려는지를 언제나 성찰해야 한다. 렘 17:10 -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중심을 살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 이들은 속임, 위선, 거짓, 악한 마음으로 남을 비방하는 등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주님의 눈을 두려워함으로

약속을 지킨다. 시 15:1-5 -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가정, 일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섬긴다. 엡 6:7 -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 3:23 -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찾으신다. 성도는 자신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적 행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순전하게 만드는 자신의 중심을 늘 점검하고, 가장 먼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바르고, 정직하며, 말씀에 맞게 세워져 있는지를 매 순간 살펴야 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지금 이순간 우리의 중심을 성령의 빛 가운데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2. 이 세상의 각종 문제, 질병, 마음의 상처 등으로 힘들어 하는 교우들에게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3.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중미와 남미 선교지들(멕시코 이철남, 페루아마존 홍성진, 페루 황윤일, 콜롬비아개혁신학교 고석훈)이 성령충만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